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발행부수 유료구독률 1위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761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음력 11월 22일)

道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막판까지 '진통'

도의회 예결위, 오늘까지 계수조정 완료할 계획
도 "검토 시간 촉박… 본회의 전까지 지속 협의"

7조6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1조5900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계수조정안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만큼, 조정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12일부터 계수조정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의 증액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본회의 하루전인 14일 오후 6시까지도 양측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7조639억원(일반회계 5조8731억원, 특별회계 1조190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6717억원(10.5%) 늘어난 규모다.

예결위 심사에 앞서 진행된 5개 상임위원회별 사전심사에서 제주도 예산안은 210여개 사업에 505억원 가량 감액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8000만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등 체육시설 시설비 17억원 등이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는 증액사업의 조정 규모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490억원의 조정안을 내놓고 있는 반면, 도의회는 550억원의 조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도는 증액사업과 관련해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회와 제주도가 생각하는 증액사업의 필요성이 다르다"면서 "매년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서로 입장차는 발생했고, 본회의 전까지 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입장을 보게되면 미리 (증액사업)을 선공개할 경우 이후 달라지는 예산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는데 매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증액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에 사업별 리스트를 보냈다"면서 "이후 제주도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으로 15일 오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청년실패보장제' 내년부터 시행

폐업시 대출금 분할상환 지원

창업 청년들이 폐업할 경우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청년실패보장제'가 도입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청년실패보장제를 위한 예산 7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실패보장제는 창업 청년들의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의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청년의 실패 또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폐업사업자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미상환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하지만 청년실패보장제가 시행되면 폐업사업자 만기도래시 '브릿지 보증'으로 연계해 5년 이내에 분할상환토록 유도하는 등 창업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에서 해당 제도를 제안한 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앞으로 '실패'라는 영역 이외에도 실제로 청년들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정책설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올해까지 사용하세요"

기한 넘기면 환수 처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사용 기한이 보름가량 남았지만, 미사용액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8월 1일부터 전 도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13일까지 대상자 68만3874명 중 65만1027명(95.19%)이 신청했다.

13일 기준 탐나는전(카드형) 지원금 미사용액은 25억9300만원으로, 지원금은 오는 31일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되며 탐나는전 운영대행사를 통해 환수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지원금 지급 전용 누리집(https://tdis.konacard.co.kr/50000/1)으로 20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신청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설국(雪國)으로 변한 제주대학교 네거리 맹추위가 찾아온 14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네거리 도로에 많은 눈이 내려 지나는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코로나19 잠정집계 14일 <17시 기준>
신규 563
누적 35만5731

알 림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및 필승전략 설명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8일 치러집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선거는 선관위에서 관리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마다 물밑에서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선거인만큼 지역경제와 조합원에게 중요한 선거이지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돼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32개 조합에서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서류 등 준비사항, 선거운동방법, 각종 제한·금지사항 등 후보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조합장 당선 필승전략'이라는 소중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 일 시: 2022년 12월21일(수) 오후 2시
• 장 소: 한라일보사 회의실
▶ 신청: 한라일보사 기획부 750-2543, 750-2291

제1부: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강사: 김도균(VLS선거미디어컨설팅 이사)
▶위탁선거법 요점정리
▶참고판례 응용 중심 해설

제2부: '조합장 당선 필승전략'
강사: 유광혁(VLS선거미디어컨설팅 총괄본부장)
▶유권자는 누구에게 표를 주는가!: 이익을 주는 사람과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눈과 가슴의 기억은 결국 '뇌'에 새겨질 뿐이다;
평판과 이미지, TEXT<IMAGE<ANIMATION
▶요상한 위탁 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외우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재차 확인해라.
▶현조합장을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도전자는 전략과 지략을 쥐고 있다.
▶압도적으로 재당선 되는 방법;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더 겸손해라. 그리고 실수하지 말아라.
▶이미지는 카톡으로 보강하고, 평판은 언론으로 대응해라.
▶지금이 가장 선거하기 좋은 시기이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
▶후보자 가치와 철학은 태도로 나타난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언제나 온다!

한라일보